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사순 판공 성사

- 3월 7일(월)~4월 10일(일) 매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평일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하는 동안에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판공성사를 보신 분은 판공 성사표를 고백소 앞 판공성사표함에 넣어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월~토요일 새벽 미사까지)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4/11(월)	4/12(화)	4/13(수)
23구역	24구역	1구역

● 성주간 전례 일정 안내

- 성상일(4월14일~4월17일) 동안 평일 미사 없습니다.

4월 14일(목)	저녁 8시	주님 만찬 성목요일
4월 15일(금) 금욕, 금식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저녁 8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 ※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16일(토)	오후 4시	어린이 부활절 미사
	저녁 8시	부활 성야 미사 (사순 생활 실천표 봉헌)
4월 17일(일) 부활 대축일	06:30, 10:30(교중), 10:00(중고등부) 12:00(낮), 19:00(저녁)	

● 시노드 모임

- 남성 시노드 3차 모임 안내
 - 1지역 자체 실시
 - 2지역 4월 10일(일) 12시 2교리실
 - 3지역 4월 10일(일) 12시 3교리실
 - 4지역 4월 10일(일) 12시 4교리실
 - 타 소모임은 위 시간과 장소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남성 신자분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 모임 안내

- 1Cu. : 4월 10일(일) 12, 강당
- 2Cu. : 4월 10일(일) 13시 30분, 강당
- 3Cu. : 4월 10일(일) 12시, 식당
- 4월 17일(부활절) 이후 레지오 모임을 재개합니다.
- 4월 21일(목)부터 오전 10시 미사를 재개합니다.

* '어스 아워' 캠페인 *

지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행동인 지구촌 소등 행사에 동참해 주세요.
일시 : 4월 22일 20:30~21:10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알림

-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4월 13일(수) 저녁 7시 미사는 본당 임원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3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사순시기)

외박 교우 예비신자 교리반

- 예비모임 : 5월 1일(일) 교중 미사 후 강당
- 기간 : 5월 8일(일) ~ 7월 24일(일), 총 12회
- 시간 : 주일 오전 9시~10시(주일 교중미사 참석 의무)
- 세례식 : 7월 30일(토) 오후 2시

가톨릭 교회의 성모님에 관한 교리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천주의 모친, 1/1)
- 평생 동정이시며
- 원죄 없이 잉태되어 나시고 (무염시태, 12/8)
-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분 (성모승천, 8/15)
- 신앙의 모범, 공경의 대상, 순명의 모델, 우리 희망의 표지

● 다음 주일(4/1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합니다.	청 소	22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3월 30일 ~ 4월 5일)

교무금	10,927,000원
주일헌금	3,861,600원
감사헌금	유○○ 5만원 박경순 10만원 이봉연 5만원 문영문 5만원
	허인옥 20만원 김수자 10만원 지현주 5만원 이향선 10만원
	서만심 6만원 이재선 10만원 양옥순 5만원 이승문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설	복사	독서
4/10	박혜선	심재순	최상림
4/17	유명진	오성환	김진수
			최웅조
			김보금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4/10	박용환	최영만	손상민	이계명
4/17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이화봉
				최석준
				최승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자신의 지역에서 시작하기

151. 지역 간 교류를 통하여 더욱 가난한 나라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되었고, 이러한 교류 덕분에 보편성이 반드시 그들의 특성을 약화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향한 타당하고 참된 개방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이웃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웃 민족들과 문화적, 경제적, 경제적 통합에 자기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촉진하는 교육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건강하고 보편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첫 단계입니다.

152. 우리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웃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동행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를 매우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치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감사, 연대, 상호성의 특징을 지닌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이웃은 그들에게 공통된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웃 나라들이 그 민족들 사이에서 이와 비슷한 이웃 정신을 고무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주의적 정신도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이들을 경쟁자나 위험한 적대자로 여기며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서 보호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도 같은 지역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과 불신 안에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153. 이러한 고립에서 이득을 얻고 각 나라와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를 선호하는 강대국과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소국들은 이웃 나라들과 지역 협정을 맺어 하나의 연맹을 이루어 협상함으로써, 차단과 고립과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국가도 고립된 상태에서 자국민의 공동선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5장

더 좋은 정치

154. 사회적 우애를 실천하는 민족과 국가를 기초로 형제애를 실현하는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치는 흔히 다른 세상을 향한 진전을 가로막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중 영합주의와 자유주의의 형태

155.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선동적으로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대중 영합주의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이득에 일조하는 자유주의의 이면에는 힘없는 이들에 대한 관심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장 힘없는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세계를 구상하기 어렵습니다.